

'불교는 어렵다' 인식부터 바꿔야

1 부처님이 오랫동안의 고행과 수도를 통해 깨달은 것은 바로 연기(緣起)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교사가 있기에 학생이 있고, 학생이 있기에 교사가 있습니다. 이를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고 자비심을 가진다면 학생이 이미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장운 스님
(논인학원 이사장)

적인 활동인 불교적 체험을 시키는 것입니다. 청소년 포교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생활을 지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포교전문지도자 육성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알맞은 교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학생회의 조직화 및 체계화 작업입니다.

2 중립학교는 교리를 주입하기 보다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가르침을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목시켜 불교가 어렵다는 인식을 떨쳐내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립학교는 교육활동과 종교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교의 수행 활동 가운데 명상, 선(禪) 수행 등의 방법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여 학업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성 교육이 강조되는 오늘날, 자아존중,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학생들의 올바른 심성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 학생회의 독립적 공간을 마련하여 지도자와 함께 자발적인 법회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훌륭한 포교사로 다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찰체험활동, 불교복지재단의 봉사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키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가진 정적인 면을 극복하는 것이 포교의 핵심입니다. 아울러 학교와 관련된 스님이나 포교소임을 맡은 스님만이 포교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스님들께서 청소년 포교활동에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포교의 최일선에 중립학교가 있고, 청소년 포교가 불교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불교가 지닌 다양한 장점을 살려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것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에게 동

강요보다는 문화콘텐츠로 접근

1 청소년기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진로도 결정되겠지만 자신의 인성이 바로 잡히는 시기이므로 바른 가르침을 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성찰과 자기반성이 따라야 하며 믿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부단한 불교적 수행이 필요합니다. 바로 청소년은 이 나라의 동양이기 때문에 교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학생회의 조직화 및 체계화 작업입니다.



대성 스님(금정학원 이사장)

4 개인 중심의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물질의 풍요가 가져온 병폐로 사회가 혼란스러우며 자신의 문제를 대 사회와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모든 사고를 부정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혼란을 잠재우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교가 선도에 서야 합니다. 특히 철저한 자기 성찰을 근본으로 하는 불교사상이 이러한 병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2 중립학교의 맹목적인 신앙심을 강요하기보다 문화적 콘텐츠로 접근하며 학교의 분위기를 신앙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다도, 명상, 선체조 같은 일반화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많이 제공하고, 중립학교 교법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포교에 전력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과감한 시설 투자를 통하여 타 아웃 중립학교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중립학교 간 교류를 원활히

3 체계적인 불교 지도서 보급 및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콘텐츠화 하고, 사찰 차원

청소년 불자수가 좀체 늘어나지 않고 있다. 어린이 포교를 등한시한 결과이기도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 역시 부진하기 때문이다. 불교계 중단이 설립해 운영하는 학원은 모두 30개. 그러나 중립학교 내에서의 포교도 그리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 여건과 보다 효율적인 포교전략의 부재가 학교의 설립취지를 살려내는 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중립학교 이사장들에게 청소년 포교의 비전을 들어 봤다. 중립학교 법인 이사장은 총 12명. 본지의 질문에 응답한 이사장은 6명이다. <편집자 주>

중립학교 이사장에게 듣는 '청소년 포교' 비전

- 1. 평소 학생들에게 강조하시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 2. 불교중립학교에서의 포교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 3. 청소년포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4. 청소년 포교에 대한 비전은?

사찰순례·수련회 등 접촉 기회 확대

1 무엇보다도 불교의 자비정신(慈悲精神)을 많이 얘기합니다. 자비심이 사방으로 퍼져가야 세상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에게 누구나 사람은 불성(佛性)을 지닌 존재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혜자 스님(청담학원 이사장)

고 전 교사가 선지식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불교 중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신행을 안내하는 여래의 사자로써 이시대의 선지식으로서 항상 수행과 학문연마에 정진해 주어야 합니다.

2 불교정신을 견학이념으로 한 중립학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모름지기 교육현장에서 부처님오신날 뿐 아니라 365일 매일, 매일이 불사(佛事)의 연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학교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역할의 중심에 학교가 서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선의 교법사 뿐 아니라 관리자의 불교적 교육관이 확립되

3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접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교란 수학여행 때 잠시 들리는 경주나 불국사 등 교과서적인 지식으로의 역사문화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찰에서 유치원이

나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는 곳은 있지만 청소년법회를 운영하는 곳은 10년간 숫자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갑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불교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주5일 수업으로 '놀보'라는 새로운 풍경이 생겼으니 큰 사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놀보에 산사순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새로운 포교의 방법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4 저는 1700년 역사속의 불교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이것이 불교포교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산사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좋아합니다. 청소년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는 이미 훌륭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일선 사찰에서도 조금씩 노력한다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체험·봉사활동 다양화로 '입맛' 돋구

1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실천이 우선입니다. 실천을 소리높여 주장한 게 불교의 핵심이라 한다면 유아부터 초중고생들에게 불교의 핵심 사상을 일러주어야 합니다. 또 교리중심의 신앙적 차원의 포교활동을 떠나 우리의 가정에서와 같은 친숙함을 갖을 수 있도록 얘기하고 보여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일 스님
(백성학원 이사장)

2 관련 교과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교적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사회탐구, 중학교의 국사시간에 이루어지는 불교와 관련된 유물, 유적, 역사적 사실들을 교육할 때 단순한 시험을 위한 암기식 교육보다는 당시의 사회변화에 깔려 있는 의식 즉 불교가 당시 민중을 대변하였던 것을 부각시켜 교육하는 것도 청소년의 포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상' 등을 접할 때 거리감 없이 쉽게 동화될 수 있도록 현재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와 적극 연계해서 불교가 깊은 산중에서 스님들의 수도하는 도량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각종 체험활동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

4 우리 불교계 또한 청소년의 올바른 선도를 위해서 여러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기복중심의 신앙활동, 개인 위주의 소수적 신앙활동이 대부분입니다. 더구나 피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의 문제를 그의 부모나 할머니를 통해서 교육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 청소년 포교를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포교활동을 위해서 중립차원에서 체계적이지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자연스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절' '스님'

3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에게 우리 불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면 청소년들에게 강요가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자연스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절' '스님'

좋은 인연 맺고 가꾸는 지혜 가르쳐

1 아름다운 인연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 명예욕, 권력욕 등이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과 인생의 본질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삶이 행복한 삶을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뇌와 갈등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은 결코 불행과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일면 스님
(광동학원 이사장)

개설해야 합니다. 학생회 법회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고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자들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불교적 교육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중단은 유·무형의 지원을 통해 개인 불자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불교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불교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요즘들어 사찰에서 실시하는 템플스테이와 놀보 놀보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불교적 체험의 장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2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과 부모님들이 바라는 직업을 얻기 위해 오로지 학교 공부에 매달리고 있으니, 어찌 넉넉한 인성교육과 참된 종교적 가치관을 만날 여유가 있었습니까? 이런 면에서 불교중립학교는 종교시간을 통한 종교적 가치관 습득과 종교간의 이해 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인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교중립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참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4 갈수록 다양해지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불교 포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확장시절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모든 불자들의 책임이라 생각해 봅니다. 밝은 미래를 이룰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 봅시다.

3 우선 사찰에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학생회를

자연스러운 교육 교직원 모범이 우선

1 사람은 모름지기 바람직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신과 환경을 자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인격을 연마해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실천을 해야한다고 얘기합니다.



혜인 정사
(회당학원 이사장)

2 구체적 포교의 실천은 각 중립이나 설립자의 정신을 동력원으로 하여 시대적 사상적 경향에 맞추어 구체적인 구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중립학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청소년 포교의 활성화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교육을 통한 포교가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기본을 갖춘 인성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상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

이뤄지는 교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불교적 정신이 투철한 모범적인 교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신을 바탕으로 해야 구성원들간에 화합을 바탕으로 신뢰와 믿음을 통해 청소년 포교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학교법인은 모범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교직원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가 강조된다면 충분한 실용성이 있다고 봅니다.

4 불교는 인간과 자연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지게 하고, 인간과 우주의 실상에 대하여 진지한 연구와 이해를 돕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합니다. 좁게는 지역과 민족의 일원으로서 넓게는 세계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구체적인 생활을 중시하도록 청소년들에게 강조한다면 충분한 실용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리-권원우 기자

Advertisement for '명상 그 푸른눈의 지혜' (Meditation, The Wisdom of Those Green Eyes). Includes a book cover image, a quote from a Buddhist text: '형상과 이름에 집착함이여 그 거짓됨을 알지 못함은 오로지 밖으로만 구하여 탐진치는 더욱 강렬해지고 신구의(身口意) 3업은 더욱 거친 모습으로 감각과 말초(末梢)의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을 좇아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더욱 흉악해진다. 참되지 못한 망령됨과 순수하지 못한 혼탁함으로 중생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게 되어야! 의타기성(依他起性)은 실종되고 원성실성(圓成實性)은 매몰되도다.' and a list of books for sale: '新 유식학 (보정판)', '나는 누구인가?', '金剛經 最上乘解 (근간)'. Contact information for Buddhist Studies Research Association is provided.